

인천지역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유지예, 김지영, 이해지, 박찬진[†]

인천대학교

(cjpark@inu.ac.kr[†])

경제성장에 따라 많은 수의 화학물질이 개발 및 사용되면서 산업사회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였으나 화학물질의 사용, 취급증가로 다양한 양상의 사고가 발생되면서 손실을 야기시켜왔다. 유럽연합은 소위 REACH 제도를 도입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하여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화학물질 관련 사고들로 인해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정보와 이해도 및 관리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천지역의 경우 산업단지에 등록된 기업체 중 대략 50 % 정도의 사업체에서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 이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상에서 관리 중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다수 위치하고 있는데 도시지역의 특성상 대규모 주택단지가 인접하고 있어 각종 화학물질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유해화학물질 관련 업종의 취급량을 파악하고 기초자치단체별 유해화학물질 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인천지역 유해화학물질관리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사

본 연구는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의 2018년도 연구개발사업비 지원(18-3-1-70-72)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